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목은 매화나무 가지에 꽃눈이 맺혔다. 흑한을 견딘 매화나무를 기특하게 바라보며 설레곤 한다. 매화 맑은 향기가 공중에 퍼질 때면 사는 일이 딱딱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던가. 하지만 봄이 올 때마다 나는 말 꼭 짚히듯 찾아오는 우울증에 짜증을 내고, 대인기피 증으로 고립된 채 지내며,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고 회피한다. 해질 녘 햇빛에 잠긴 붉은 석양 아래 지친 새와 같이 깊은 피로에 사로잡힐 땐 스스로를 구제불능의 실패자로 여기고, 자주 통제력과 의욕을 상실한다.

우울증은 일조량이 준 겨울을 나면서 겪는 환절기 중 후군이다. 뇌가 우울증에 잠식되면 사고의 균형을 잃고 모든 정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인지 왜곡'(cognitive distortion)에 빠져드는 까닭이다. 비현실적 사고에 과몰입하며 비판에 기울어 종종 자해나 자살 같은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울증 따위에 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다. 그러나 나는 우울증으로 낙담하거나 허송세월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급조라 기처럼 반짝이는 햇빛 아래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는 금생의 시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가!

봄날엔 할 일이 많다

어린 날의 봄은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가 반전고리에서 잤을 골무를 끼고 구멍 난 양말을 꿰매는 동안 나는 어린 동생과 뒷동산에 올라 새 등지를 찾아 돌아다녔지. 저녁 때 어머니가 작년에 거둔 청동호박으로 끓여 주신 호박죽 한 그릇을 먹고 한 이불 아래 잠들었다. 호박죽을 먹고 한 이불 아래 잠든 어린 형제는 재속 프란치스코 수도회 형제만큼 신실한 믿음을 갖진 못했지만, 제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옳은지를 가늠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났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가랑잎처럼 이승을 떠나셨다. 한데 세상은 그때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천지간에 봄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너무나 많은 이별을 겪고 맞는 이 봄날이 인생 처음 맞는 봄이 아니라 슬퍼할 까닭은 없다. 썸바귀와 뽕남천에게 인사하자. 겨우내 추위에 시달린 길고양이에게도 인사하자. 청매화 몇 송이 피었다 진 뒤 양치바른 곳 산수유 생각나무 가지에서 피어나는 노란 꽃을 환대하자. 봄은 벌써 저 남쪽에서 복상을 서두른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다랑이논에 물이 차오르고, 물 한 논에서 우렁이들이 새끼를 치는 봄날을 기다릴 때다.

입춘 지나며 한랭전선은 북쪽으로 밀려났다. 어제도 오늘도 별이 좋았다. 별 좋은 날은 양팔을 휘저으며 발목이 시큰해질 때까지 걷다 돌아온다. 내가 사는 파주의 대기를 휘젓는 바람 끝은 아직 차갑다. 하지만 어깨에 다정하게 손 얹듯 내리는 도터와진 별 아래 걷노라면 팔다리에 새삼 피가 잘 돌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건 신경화학전달물질인 도파민·세레토닌·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이 돌기 때문일 테다. 오후엔 기름 두른 솥뚜껑에 배추전을 부쳐 막걸리 한 잔을 마신 뒤 '한 번도 길 놓치지 않고 오는 운명 같은 저녁'(이기철)을 호호하게 기다릴 일이다. 밤엔 평생 가난했지만 안빈낙도를 꿈꾸던 김관식의 시집을 꺼내 읽고, 오래 소식이 끊긴 지인들에게 안부 편지를 쓰자.

언 강물이 풀리고 땅 속 구근들은 지표로 새싹을 밀어 올리는 중이다. 봄날엔 동네의를 벗어 빨아 넣고 빨래가 마르기를 기다리자. 사랑이 끝났다면 사랑 이후의 사랑을 꿈꾸자. 새들은 더 힘차게 공중을 활강할 때, 숲을 굽는 이들은 산에서 숲 속 일에 열심이고, 청명한 날씨가 이어지는 바다에서 승어를 잡는 이들은 그물에 걸려 퍼덕이는 승어 몇 마리를 데리고 온다. 꽃들의 잔치를 불러 나온 꿀벌들이 잉잉대며 노래할 때 우리는 게으름을 떨치고 일어나 어린 인류를 보살피야 한다.

만물이 움트고, 뻗고, 피고, 생동하는 봄날엔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우리에겐 할 일이 많다. 봄이 낫가에 소곤거리는 말을 경청하자. 평범한 사람들의 내내심을 배우고 익히자. 길고양이가 먹는 밥에 독약이나 푸는 이틀처럼 제때하게 살지는 말자.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린 생명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 주자. 키가 한 뼘쯤 커 버린 어린것을 무릎에 앉힌 채 가가껴겨 한 글을 깨우쳐 주고, 옹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자. 주말엔 이른 아침밥을 해 먹은 뒤 지어미 지아비가 손 맞잡고, 고창 선운사 뒤편 대웅보전에나 찾아가서 동백꽃이 피었나 아직 안 피었나 보고 돌아오자.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오래전 '시간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삶의 모습과 빠르기의 문제 그리고 장소와 문화에 따라 시간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삶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는 좋은 책이다. 왜냐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 만, 그 시간을 마추는 사람들의 지향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에 처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복인지 불행인지 인지하지 못할 뿐이다.

그 시간을 행복과 불행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결국 행복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고 그 선택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하다. 곧 불행은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코로나 시대 이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일상이 변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의 습성을 반성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만 더

여전히 바쁘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거나 도태되는 느낌마저 든다. 살아왔던 삶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삶을 살도록 교육받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먹방'을 시청했는데 맛났스런 음식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음식과 음료가 실낱 같은 희망처럼 간절할 때가 있다.

나를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거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고 보다 나은 삶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멋지고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고 자신의 삶조차 망가뜨릴 수 있다.

내 책상 한 쪽에 사진이 하나 있다. 이 사진은 케빈 카터(Kevin Carter)가 1993년에 찍은 것으로 세계가 아프리카 수단을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그마한 소녀는 고개를 땅에 떨곤 채 옹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굶주림에 아وى어 갈비뼈가 선명하게 드러난 왜소한 몸으로 힘겨워 보였다. 그 뒤에 대머리 독수리 한 마리가 시선을 고정한 채 소녀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프리카 빈곤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보도 윤리 등의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죽어 가는 소녀가 독수리의 먹잇감이 될 위급한 상황에도 카터는 사진을 찍는 데만 몰두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카터는 서른셋의 나이에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다고 한다. 카터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을까?

2013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을 통해 세상에 던졌던 메시지를 상기하고 싶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불평등한 경제시스템에 '노'(NO)라고 해야 한다. 집 없는 늙은 노숙인이 죽는 것은 뉴스가 안 되고, 주식시장에서 지수가 2포인트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뉴스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도 음식이 버려지는 상황을 계속 방관하고 있을 수 있나? 이것이 배척적이고 불평등이다."

탐욕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내 삶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예수가 루카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더 깊게 다가온다.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 한 번만 더 사람을 생각해 보고, 들여다 보고, 집중해 보자. 밑바닥이라고 느껴지는 곳에 사람이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곳에 또한 사람이 있다. 고통 속에 갇혀있는 곳에 사람이 있다. 우리와 이들이 느끼는 시간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들여다 보고, 집중하면 보인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할지도 보인다.

안전을 확보하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요가 크게 늘었으나 현장에서는 안전 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안전 보건 전담 인력 배치에 나서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안전 인력뿐만 아니라 법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공공 부문 감독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광주노동청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2명뿐이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3126곳(광주 1429곳, 전남 1697곳)이나 된다. 근로감독관

社說

민주당 대선 열기 왜 텃밭에서도 미지근할까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이지만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선거 열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예전 같으면 유세 차량의 분주한 움직임과 거리마다 나붙은 플래카드가 분위기를 고조시킬 터인데 지금은 의외로 너무나 조용한 모습이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 때문에 오프라인 선거 운동이 예전만 못한 거야 당연하겠지만, 온라인에서조차 민주당 선거 열기가 미지근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남 지역 지지가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텃밭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열린 민주당 광주전남 선대위 공동 출정식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출정식에 참석한 인원이 고작 300명에 불과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한 것이다. 지방의원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수만 해도 300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석자 수가 적어도 너무 적었다.

이처럼 민주당의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목전에 닥친 지방선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를 예상하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자기 정치'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전남도 의원은 전체 여덟 명 가운데 네 명이나 된다.

선거운동의 컨트롤타워인 선대위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뜨지 않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지난해 당 대표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지역 정치권이 여전히 '원팀'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선대위에 여러 계파가 섞여 있어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텃밭 민심을 놓쳐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호남은 어차피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 오만을 버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대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안전 인력 찾기 어렵고 감독 인력도 부족하고

한 명당 사업체 260곳을 맡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중대재해 대처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민간 영역에서는 그나마 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이 같은 공공 부문의 미온적인 대응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안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서 민간에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둘러 조직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전담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 전문자 집단 등과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걸맞은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해 더 이상 노동자가 희생되는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광주노동청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대재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2명뿐이다. 이에 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3126곳(광주 1429곳, 전남 1697곳)이나 된다. 근로감독관

無等鼓

대통령제 도입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영부인들에 대한 비교 평가는 별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23년 전 가장 먼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에서는 영부인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에 대한 평가만큼이나 중요시해 왔다. 그동안 수많은 영부인이 있었지만 미국인들에게 이들 중 최고와 최악을 고르라고 하면 십중팔구 동일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한다.

최고의 영부인은 '불행을 기회로 만드는 행복의 연금술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던 루스벨트의 부인 '엘레노어 루스벨트'이다. 엘레노어 루스벨트는 소아마비로 황폐어 생활을 하는 남편 대신 전국을 누비며 여론을 청취하는 등 국민의 신망을 받아 루스벨트를 미국 유일의 4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영부인 역할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작성을 주도할 정도로 인권·사회운동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소수 인종 권리 투쟁에 직접 참여했으며 남편 사후에는 여성 최초로 유엔 인권위원장에 올랐

다.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로 통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자신의 비서와 불륜을 저질렀을 때도 그녀는 현명한 대처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등 완벽한 내조를 보였다.

최악의 영부인으로 꼽히는 메리 토드 링컨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의 아내이다. 메리는 과소비로 유명했는데 단순히 돈을 흥청망청 쓰는 정도를 지나 국민의 식성과 어긋나는 태도로 쇼핑 중독증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남북전쟁 중에도 한 달 동안 84켤레의 장갑을 구매했으며 백화점에 서 외상으로 쇼핑을 즐기기도 했다. 특히 암살당한 링컨의 장례식이 열릴 때조차 메리는 최고급 상복을 주문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 후보보다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큰 이상한 선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영부인이 될 지도 모르는 이들의 각종 의혹과 리스크가 연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후보 배우자에 대한 평가가 승부를 가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영부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경치부 220-0632	예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작년에만 다섯 명이 더 늘어 현재 41명에 이른다. 전국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는 관리 경험이 충분한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현장 민원 업무와 공동주택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와 부산만이 공직의 문턱이 높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공동주택은 얼마나 될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을까? 공동주택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한다.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주택 대비 공동주택은 84%이며, 그중에서 아파트 비율은 80%에 이른다. 즉, 주택 열 채 중 여덟 채는 아파트라는 말이다. 또한 광주 시민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73.4%에 이르며, 아파트에서만 71.4%가 살고 있다. 특히 아파트 비율은 전국 평균(63%)보다 광주광역시가 월등히 높다. 참고로 서울의 아파트 비율은 58.8% 수준이다.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보급률과 거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주 공간인 주택 중 아파트가 이렇게 많다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또한 여기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많은 갈등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다.

관리 주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업무 역시 다양하다. 규제화된 행정 지침에 대한 이해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시설물 유지 관리, 각종 계약 및 공사, 행정·회계·사무 관리, 입주인 관리와 같은 대인 업무 등등 많은 일들이 반복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하게 진행된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역사는 아주 짧다. 고작 30여 년이 전부다. 공동주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배우지도 못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적 태도가 판을 친다.

행정 관청의 대응도 현명하지 못하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조정과 화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보다는 과태료와 같은 징벌적 잣대로만 재려 든다. 그러다 보니 이기고 지는 게임의 법칙에 혼란스럽게 빨려 들어간다. 공무원의 잦은 부서 이동도 해결을 어렵게 한다. 업무 교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관리비 절감이라는 마법에 눈이 멀어, 인력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낮추는 노력(?)이 무슨 대단한 성과인 양 자랑하는 곳이 이곳 광주였다. 열악한 근로 조건을 자초하면서, 선순환을 무시하고 악순환을 택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공동주택 관리 업무 및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시민의 대부분이 살아가는 공동주택이 갈등과 복대전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더러는 열과 성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현장은 열악하다. 관심과 지원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광주가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선도했으면 좋겠다.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